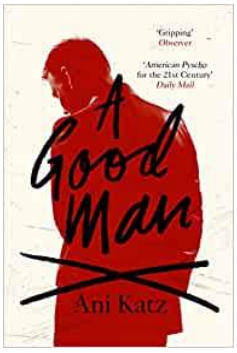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 GOOD MAN

가제 : 착한 남자

저자 : Ani Katz

출판사: William Heinemann

발행일: 2020년 1월 1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단 한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심리적 힘을 그려낸 강력한 작품이다." - 『You』의 작가 캐롤라인 케픈스**

***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쉽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는, 공포와 불안감이 가득한 대담한 소설"- 『Are You Sleeping』의 저자, 캐틀린 바버**

토마스 마틴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번듯한 집에 살며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알뜰살뜰 돌보는 착한 아들이자 착한 오빠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실패를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모든 비극은 그가 바로 착한 남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오던 한 남자에게 일어난 이야기와 인간 내면의 불편한 진실을 담은 심리 스릴러이다.

그 날, 토마스는 마침내 크리스마스에 맞춰 자신에게 배송된 곤봉을 열어보았다. 이 곤봉을 제작한 아마추어 장인은 자신의 췌장암을 낫게 해준 약을 광고한 토마스에게 고맙다며 감사 편지도 한 장 동봉했다. 편지를 읽은 후 그는 집에 오면 늘 그랬듯이 오페라를 틀었다. 그러자 곧 그가 온 것을 알아차린 그의 아내 미리엄과 수영을 마친 딸이 그에게로 달려와 뽀뽀 세례를 퍼부었다. 그는 얼마 전 암 치료제를 소개하는 TV 광고를 맡았는데 광고에서 이 약은 암환자들의 생명을 되찾아 주는 기적의 약물로 연출되었다. 토마스는 이처럼 죽음과 같은 무거운 주제마저 아주 가벼운 것으로, 심지어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이런 기적이나 환상, 신의 존재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때론 이러한 약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토마스는 한참 오페라를 듣다 다시 곤봉을 꺼내보았다. 이 곤봉은 오로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최근 들어 그는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총기 사건들과 테러와 같은 일들 때문에 내심 불안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심지어는 뉴스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불길한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고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여자들 (아내와 두 딸,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재정적인 이유로 아직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아픈 어머니와 스무 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이 같이 구는 쌍둥이 여동생들이 하루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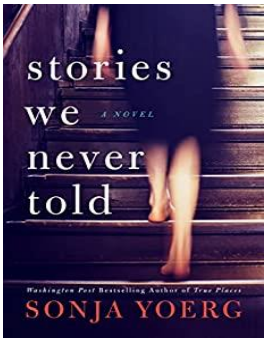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철저한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그 상황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자신이 괴물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착한 남자'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이자,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착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이자 공급자이며 보호자인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후 토마스는 자신의 딸과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과 미리엄을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리엄은 자신과 달리 화려한 파리에서 정육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하고 있는 한 유대인 가정에 서 자라 매달 월급처럼 신탁 자금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바르셀로나와 로마를 거쳐 뉴욕에 와서 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중 토마스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토마스는 그 무렵 간절히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마침 미리엄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그녀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토마스는 자신이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완벽한 가정의 이상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리엄은 늘 부유한 귀금속과 옷들에 둘려 싸여 살기를 바랐고 날마다 인터넷 쇼핑에 빠져 있었다. 또한 토마스는 자신의 연약한 남성적 자아가 무너지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여전히 선한 사람이고 좋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을 몰락시키고 만다. 그의 여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자 소개>

아니 카츠 (Ani Katz)는 작가, 사진 작가 및 교사이다. 저자는 롱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컬럼비아 칼리지 시카고에서 사진학 전공으로 MFA를, 예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



제목 : STORIES WE NEVER TOLD

가제 : 그 사람은 안돼! -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질투

저자 : Sonja Yoerg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328 페이지

분량 : 2020년 5월 1일

장르 : 스릴러

*** "사랑과 집착! 행복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오랜 비밀에 관한 이야기. 독자들은 끝까지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질 것이다." -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 『Dear Wife』의 저자, 킴벌리 벨**

*** 전작 『TRUE PLACES』으로 450,000명의 독자를 사로잡았으며 아마존 베스트 셀러와 워싱턴 베스트 셀러에 오른 작가의 신작**

*** Amazon First Reads 선정**

심리학 교수인 재키 스트렐리츠는 이제 자신을 거부한 옛 사람은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재키에겐 다정한 남편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멋진 커리어가 있고 마침내 자신이 바랐던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되어 있다. 하지만 재키는 최근 전 남자친구인 할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린다. 거짓말과 질투, 강박으로 가득한 강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정확히 98일 전, 재키가 참석했던 그 저녁 식사는 편한 마음으로 그냥 한 끼 정도 같이 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아끼고 있는 사이였고 재키는 그 식사 자리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리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98일 후, 그녀는 그 중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과 너무나 많은 비밀과 거짓말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과 함께 말이다. 당시 재키는 아무리 자아 실현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는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용해 얼마든지 타인을 기만할 수 있다는 것, 사랑과 욕망에 휩싸이면 사람의 본질을 절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 모든 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재키처럼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그 식사 자리는 재키에게는 재능 있는 젊은 운동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남편 마일스를 열흘 만에 보는 자리이자, 전 애인이자 지금은 동료인 할란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다. 재키는 할란과 5년 동안 사귄 사이였는데 재키가 마일스와 데이트를 시작한 무렵 할란이 먼저 재키와 마일스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제안한 이후 이렇게 이따금 함께 만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재키는 할란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비좁은 심리학계에서 괜히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마일스 역시 별로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할란과 다시 친구로라도 잘 지내기 위해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이었다.

재키는 남편에게 곧 도착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할란에게 온 뜻밖의 문자를 받았는데 세 사람만 외에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을 더 데려오겠다는 내용이었다. 재키는 곧 전직 럭비 선수로 탄탄한 몸과 믿음직한 심성을 가진 남편 마일스와 레스토랑 밖에서 미리 만났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한지 일년 반 정도 됐고 서른 여덟 살 재키에겐 이 결혼이 첫 결혼이었지만 마일스에겐 두 번째 결혼으로 그에겐 ADHD를 진단 받은, 아들 안토니오가 있었다. 재키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할란이 대체 누구를 데려오는지, 자신의 차림이 어떤지 계속 신경 쓰였다. 재키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보며 활짝 웃는 할란을 마주했다. 재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할란의 목소리를 듣자 모든 것이 무장해제 돼버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가 항상 사용하는 화장품의 냄새를 맡자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으로 자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껴 매우 당황스러웠다. 오랫동안 자신이 그를 완전히 잊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 재키는 그의 옆에 자리 잡은 나시라를 보게 되었다. 나시라는 재키와 함께 일하는 박사 연구생이었다. 재키는 아직 연구소에 들어 온지 3주 밖에 되지 않은 나시라가 할란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할란은 그의 특유의 성격대로 재키가 궁금한 이야기는 하고 않고, 다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으며 재키는 실험실에서랑은 달리 화려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나시라를 뚫어져라 관찰했다. 나시라는 할란의 나이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스물 여섯 살의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하지만 할란이 나시라에게 보내는 윙크에는 분명 단순한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시라와 할란과 헤어진 재키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달려가 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할란이 자신을 만날 때와는 달리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니며 나시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자, 더더욱 질투심과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새 그녀는 자신의 단순 호기심이 집착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두 연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스토킹까지 하기 시작했다. 재키는 마일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누리는 편안함 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반전과 반전이 거듭대며 천천히 공포감이 온몸을 사로잡게 만드는 심리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소냐 요르크 (Sonja Yoerg)는 워싱턴 포스트 베스트 셀러 소설 『House Broken』와 『The Middle of Somewhere』, 『All Best People』, 『True Places』의 저자이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생물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물 지능에 관한 논픽션 책 『Clever as the Fox』을 집필한 바 있다.

제목 : LOVE AFTER LOVE

가제 : 그래도 사랑 - 새로운 가족의 탄생!

저자 : Ingrid Persaud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이 책은 선물과 같은 책이다.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상실의 교향곡, 상심과 죄책감,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거나 찢어주는 비밀과 거짓말. 올해의 가장 기발하고도 눈부신 이야기가 될 것이다." - 말론 제임스**

*** "비전통적인 가족의 이야기, 트리니다드의 풍경과 그곳의 생생한 삶을 보여주는 책" - 북 리스트**

*** BBC Short Story Award 수상자의 장편 데뷔작**

카리브해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트리니다드, 이 곳에 살고 있는 램딘-체탄 가족은 외로움과 비밀로 인해 흩어져야 했고 사랑으로 다시 구원 받게 된다.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베티 램딘, 그리고 그녀의 부끄러움이 많은 아들 솔로, 자비롭고 친절한 체탄씨는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이 곳은 세상의 배꼽과 같은 곳으로 점점 더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만다. 사랑과 용기, 용서, 연대에 관한 희망찬 소설이다.

베티의 남편 수닐의 폭압으로부터 시달렸다. 그는 베티를 부를 때 늘 소리를 질러댔고, 베티는 그가 출근할 때마다 온갖 욕지거리를 들으며 그에게 신문과 재킷을 챙겨다 주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툭 하면 베티를 걷어차거나 손을 부러트렸고 심지어는 칼로 다리를 찌른 적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유치원새인 아들 솔로에게도 강압적으로 굴었고 베티는 그럴 때마다 잔뜩 겁먹은 채 일부러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는 솔로를 보며 마음 아파해야 했다. 그리고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베티는 남편이 아들마저 때리기 시작했다. 이 비극은 영영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수닐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마침내 베티와 솔로는 이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몇 년 후, 베티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학교에서 수학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탄씨는 지난 밤부터 물탱크 문제로 집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화장실에는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로 가득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물탱크를 교체할 자금이 충분치 않아 막막해하고만 있었다. 치탄씨는 일단 서둘러 출근 길에 나섰고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중 우연히 차에 타고 있는 베티를 마주쳤다. 베티는 어서 자신의 차에 타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그녀와 나눈 대화라고는 아침 인사나 간단한 안부 정도 주고 받은 게 다였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길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는 얼떨결에 베티의 차 뒷좌석에 탔고 차에 타고 있던,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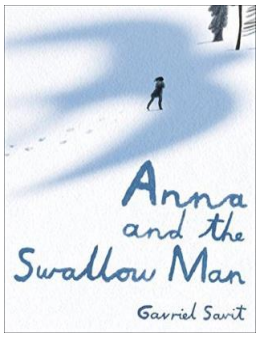
솔로와 인사했다. 베티는 치탄씨에게 이제는 '램딘 부인'이라는 호칭 대신 편하게 '베티'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채틴씨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고 어색함에 수줍어하는 자기와는 달리 조금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는 베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베티는 솔로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뒤 잠시 차를 세우더니 15분간 치탄에게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베티가 살고 있는 집은 베티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집이었는데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는 일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달에 살인 사건이 40건이나 발생하고 대낮에도 혼자 집에 있는 여자들을 노린 강력 사건들이 매우 흔했기 때문에 여자 혼자 큰 집에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체탄은 처음엔 다른 독신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을 그녀에게 추천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던 터라, 베티의 집에서 당분간만 하숙인 신분으로 살고 싶다고 제안했다.

마침내 한 집에서 살게 된 체탄은 새로운 집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솔로에게 전부 배웠다. 처음 차 안에서 만났던 그 날과 달리 솔로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했고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그를 따르고 좋아했다. 체탄은 원래 사람들과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이 집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이 다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베티 역시 점점 달라져가는 일상에 대해 행복해하고 있었다. 체탄이 온 이후 이 집에는 금요일 밤마다 TV를 보며 피자를 먹는 시간이 생겼고 체탄과 솔로는 어느 새 사이 좋은 부자와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다. 체탄은 솔로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베티를 도와 집을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도맡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베티는 체탄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체탄은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실, 바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비밀을 베티에게 털어놓았고 베티는 충격을 받지만, 곧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지냈다.

하지만 얼마 후, 솔로 역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급기야는 트리니다드를 떠나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뉴욕으로 떠난다. 갑자기 떠난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진 베티는 솔로를 애타게 찾으려 하지만 솔로는 여전히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돌아보며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램딘-체탄 가족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 화목한 시절로 돌아 갈 수 있을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잉그리드 페르소드 (Ingrid Persaud)는 2017 년 Commonwealth Short Story Prize와 2018 년 BBC 단편 소설 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LSE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런던 대학교 골드 스미스와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미술을 전공하기 전에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글은 Granta, Prospect 및 Pree 잡지에 실렸다.



제목 : ANNA AND THE SWALLOW MAN

가제 : 스왈로우맨 - 미스터리한 그와의 여정

저자 : Gavriel Savit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7년 2월 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퍼블리셔 위클리 선정 올해 최고의 책**

*** "화려한 데뷔작, 대단한 스토리 텔링" - 뉴욕 타임즈**

*** 영국, 불가리아, 중국, 대만, 체코,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에 판권 계약**

1939 년 폴란드의 크라쿠프. 이곳은 아이들이 성장할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다. 독일인들이 강제로 폴란드인들의 지식인을 모조리 데려가던 그 때, 언어학 교수인 아나 라니아의 아버지도 그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아나는 겨우 일곱 살이었고, 혼자였다. 그 후 아나는 한 미스터리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아나에게 어느 새 든든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었다. 암흑 같은 시대에 서로에게 서로의 빛이 되어준 두 사람의 우정과 희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세상을 휩쓸고 있던 무렵, 아나는 푸슈만 박사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푸슈만은 최근 게슈타포에게 끌려 간 아나 아버지의 친구였다. 아나는 하루 빨리 아빠와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푸슈만은 모든 것이 부질없는 희망이라고 판단하고, 아나를 혼자 두고 떠나버렸다. 아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그 집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나의 엄마 역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홀로 울며 길거리를 헤매던 아나는 '스왈로우 맨(Swallow Man)'을 만나게 된다. 아나는 자신의 어깨에 제비 한 마리가 살포시 앉는 순간 울음을 멈추었고, 그 순간에 있었던 이 미스터리한 남자를 '스왈로우 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다. 그는 아나의 아버지처럼 폴란드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디시어, 심지어는 새들의 언어까지 할 줄 아는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군인들마저 길들일 수 있는 술수 같은 일에도 정통한 남자였다. 아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때부터 아나는 스왈로우 맨과 폴란드 시골 이곳 저곳을 다니며 계속되는 위험한 전쟁 상황 속에서 스왈로우 맨 덕분에 몸을 피하고 그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는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스왈로우 맨은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아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단 한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아나에게 자신과 아나가 부녀 관계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나의 본명을 숨겨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도움과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람이 많은 도시를 피해 숲에서 자고 먹고 마시며 유랑하며 지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왈로우 맨과 아나는 '렙 허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애나는 곧 바로 렙과 친구가 되지만 어쩐지 스왈로우 맨은 그가 자신들의 여정에 끼어든 것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스왈로우 맨은 렙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스왈로우 맨은 아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걱정을 숨긴 채, 렙이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아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렙과 스왈로우맨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렙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사교적인 반면 스왈로우 맨은 아나를 세심히 돌보면서도 절대 감정적인 친밀감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숲을 통과하던 중 한 행상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행상인은 그들에게 고기를 팔려고 했지만 스왈로우 맨은 그 고기가 동물의 고기가 아닌 인간의 살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 행상인은 아나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스왈로우 맨과 렙에게 접근해 은밀한 협상을 맺고 싶어했다. 결국 스왈로우 맨은 그 행상인이 위험 인물이라고 결론 지었고 아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죽여버렸다. 렙은 차마 그의 살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아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인을 그냥 묵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스왈로우 맨과 계속 동행할 수는 없기에 홀로 여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스왈로우 맨과 아나는 렙이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현장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다.

스왈로우 맨과 아나는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갔고 아나는 스왈로우 맨이 적어도 하루에 세 번 늘 어떤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아나는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 후, 그가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제 그 약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아나는 조금이라도 스왈로우 맨에게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 약사를 몰래 찾아가 약을 구하려고 하지만 돈이 없는 아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사에게 돈 대신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약을 다시 복용하게 된 스왈로우 맨은 점차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스왈로우 맨은 아나를 중립국으로 데려다 줄 어부를 만나기 위해 계속 함께 여정을 이어간다. 스왈로우 맨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결국 전쟁 속에서도 아나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 아나는 과연 그의 소망대로 안전지대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될까?

<저자 소개>

가브리엘 사빗 (Gavriel Savit)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뮤지컬 극장에서 BFA를 받았다. 또한 배우이자 가수인 그는 뉴욕에서 브뤼셀, 도쿄에 이르는 3 개 대륙에서 공연한 바 있다.

UPDATE

제목 : MURMUR

가제 : 중얼거림

저자 : Will Eaves

출판사: Canongate(UK) / Bellevue Literary Press(US)

발행일: 2019년 5월 2일 / 2019년 4월 9일

분량 : 18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웰컴 도서상(Wellcome Book Prize) 우승작, 골드 스미스 상, 제임스 테이트 블랙 상, BBC 단편소설 상 결승 후보 / 가디언, 타임지 리터러리 서플먼트 '올해의 책'
* "첫 페이지부터 마음을 움켜쥐고 반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다음, 마지막에 가면 희한하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과 인간의 무한한 회복 능력에 관한 믿음을 되살려 놓는 소설" - 웰컴 도서상 심사위원장 엘리프 샤팍(Elif Shafak)
* "모욕과 품위, 절망과 용기 사이의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깊이 있고 현명하게 그린 이야기" - 소설가 겸 시인 앤 마이클스(Anne Michaels)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연기한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안타까운 삶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MURMUR는 2차 대전에서 나치가 개발한 암호를 해독하여 영국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끈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튜링의 이야기를 한 편의 새로운 소설로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들려준다. 앨런 튜링을 모델로 한 주인공 알렉 프라이어가 비상한 두뇌와 수학적인 능력을 인정받고도 치욕스러운 판결을 받고 몸과 정신이 강제적인 약물 치료로 인해 점점 무너져가는 과정을 총 세 장에 걸쳐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알렉이 일기로 꼼꼼히 기록한 내밀한 생각과 감정, 그가 절친한 친구와 주고 받은 편지, 그리고 알렉과 심리 치료사와의 대화와 토론, 상호작용 등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알렉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합법적' 조치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따라간다.

알렉 프라이어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또는 1년간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이었다. '다른 남성과의 중대한 외설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2차 대전에서 영국군을 위해 헌신하고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로봇과 기계 기술, 인공지능에 관해 열정적으로 연구해온 알렉은 논문 하나를 탈고한 뒤 머리도 식힐 겸 가까운 박람회장으로 향한다. 책상 앞에 매어 있었던 시간들을 털고 기분전환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가 시릴이라는 청년을 만난 것도 그곳이었다. 허기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알렉은 시릴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밤이 어두워 박람회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알렉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가난에 찌들었지만 어릴 때 수학을 꽤 좋아했다는 시릴과 제법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함께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음 날 지갑에 있던 돈이 털린 사실을 알렉이 안 순간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한다. 알렉이 유명한 학자이고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들은 시릴의 친구가 집을 무단침입해서 돈을 훔쳐

간 것이다. 해군 출신에 정해진 직업 없이 전전하던 덩치 큰 깡패였다. 시릴 역시 저명한 학자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 놓고 하룻밤 같이 자고 싶어서 이리저리 유혹했던 것에 이상하게 우쭐해져, 그 날의 일을 계속 돈을 뜯어내기 위한 좋은 무기로 활용할 조짐이 역력했다. 질려버린 알렉은 경찰에 가택침입이 일어났다고 신고를 했고,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며 알렉이 시릴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물론 함께 공개된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알렉의 형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알렉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시릴과 그의 친구의 협박에 힘없이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성애를 법으로 처단할 수 있었던 영국에서 그의 고집스러운 선택이 남긴 것은 화학적 거세와 심리 치료였다.
알렉은 1년간 주기적으로 맞도록 되어 있는 호르몬 주사가 자신의 몸과 정신, 의식에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의 심리 상담가로 지명된 스톨브룩 박사는 다행히 동성애자에게 치료나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영민하고 명석한 알렉에게 글을 쓰면 어차피 견뎌야 하는 시간을 조금 쉽게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인 알렉은 합성 에스트로겐이 몸 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난생 처음 겪는 의식의 변화를 제 3자처럼 면밀히 관찰하면서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하기 힘든 몽롱하고 흐릿한 머릿속의 생각들을 글로 옮긴다.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던 원시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기계가 인간의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 의식까지 대체하는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견까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없이 흘러가는 알렉의 혼란스러운 의식은 지나온 세월 동안 알렉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둔 사람들에 관한 기억과도 이어진다. 학창시절에 알렉이 진심으로,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했던 동급생 크리스토퍼와 보낸 시간들부터 그가 폐결핵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느낀 절망감까지, 신기하게도 약물이 억제하는 특정한 감정과 사고는 의식의 다른 곳에 깊이 묻혀 있었던 다른 생각과 감정을 일깨우고 알렉은 일기와 더불어 친구 준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2차 대전 당시 알렉과 함께 영국군의 암호 해독 작전에 투입됐던 준은 알렉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결혼까지 할 뻔했을 만큼 알렉을 아끼는 준은 그가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그의 꿈 이야기들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응원한다. 저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는 몸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듯이, 인간의 의식 또한 가장 신비롭고 방대하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알렉의 이야기와 함께 가장 내밀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기계 시대에 인간의 의식이 맞이할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을 제시하며 인간이 자신과 세상에게 던지는 순수한 호기심을 탐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윌 이브스(Will Eaves)는 시인이자 소설가다. 타임즈 리터러리 서플먼트(Times Literary Supplement) 예술 부문 편집자 출신으로 현재 워릭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팟캐스트 'The Neuromantics'의 공동 진행자를 맡고 있다.

* 판권 계약: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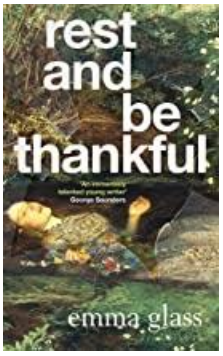
Murmur* by Will Eaves** was selected in ***Kirkus' list of the best fiction of 2019:
https://locusmag.com/2019/11/kirkus-best-fiction-of-2019/

Elif Shaffak picked ***Murmur* by Will Eaves** as a book she gives as a gift in her interview in the ***Guardian*** for Books That Made Me: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9/nov/29/elif-shafak-david-sedaris-makes-me-laugh

Murmur by Will Eaves was picked as a **Book of the Year** in the ***Australian Book Review***: 'Written in the voice of Alan Turing, Will Eaves's novel *Murmur* (Canongate) is simultaneously trance-like and analytical, and brilliantly free in its exploration of consciousnes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australianbookreview.com.au/abr-online/current-issue/704-books-of-the-year/6061-books-of-the-year-2019

Murmur* by Will Eaves** was picked as one of Thomas Bunstead's best books of 2019 in ***The White Review:
http://www.thewhitereview.org/feature/books-of-the-year-2/

***Murmur* by Will Eaves** was a Lambda Literary Award Finalist in Gay Fiction:
https://www.lambdaliterary.org/awards/current-finalists/



제목 : REST AND BE THANKFUL
가제 : 편히 쉬렴
저자 : Emma Glass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3월 19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재기 넘치는 언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담긴 소설" - 「옵저버」, 전작 『Peach』 2018년 최우수 소설 선정 사유**
*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작가. 두려움 없는 태도로 문학의 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 - 조지 손더스(George Saunders), 전작 『Peach』에 대한 서평**

출근하면 12시간 동안 밖으로 거의 나갈 일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곳, 모든 것이 희박하고 약하고 옅은, 자그마한 존재들이 몸집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큰 장비들에 둘러싸여 있는 소아과 병동은 쉴 새 없이 들리는 기계음과 그 가녀린 생명을 고치기 위한 각종 '연장'들, 그리고 색의 명암이 다른 파란 작업복을 입은 간호사들로 가득하다. 가장 진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는 정해진 시각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지휘하고 로라는 하루의 절반을 통째로 보내야 하는 그곳에서 지휘에 따라 아이들을 살려내고, 힘없이 숨이 멎어버린 아이들과 작별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형체가 로라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환각인지, 정말 눈 앞에 나타났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너무 희미하고 때로는 너무 선명해서 무서운 그 형체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리지 않고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로라를 응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형체가 보일 때면 처음 듣는 낯선 음악도 귓가를 맴돌고 온 몸이 갑작스럽게 덮인 기묘한 감각에 떨리기 시작한다. 전체적인 분량도 짧은 편이고 각 장마다 감각적인 제목이 달린 짧은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로라의 시선에서 출근하고, 12시간을 아이들, 부모들, 동료들, 병원 사람들과 씨름하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밀착해서 따라간다. 어느 간호사의 고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듯하지만 얼굴 없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로라의 눈 앞에 띄기 시작하면서 서스펜스는 점점 고조된다.

유령인지 무엇인지 모를 그 존재를 처음 목격한 건 깜깜한 밤에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피곤에 푹 절은 몸은 물에 빠졌다가 건져진 것처럼 무거웠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밤길이 더욱 캄캄하게 느껴질 때 쌀쌀한 바람 속을 걷다 문득 눈을 떴을 때 그림자처럼 바로 앞에 그것이 다가와 있었다. 온통 까만 원피스를 입은 작은 체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큼 다가선 로라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만 얼굴이 갑자기 움직이며 '일어나'라고 경고하는 소리를 듣는다. 소스라치게 놀란 로라는 손에 온 힘

을 실어 그 기괴한 존재를 향해 휘두르지만 이상하게도 로라가 힘껏 내리친 주먹은 로라 자신의 얼굴로 와서 부딪힌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눈 앞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로라의 환각은 빛이 환한 아침에도, 낮에도 끊이지 않는다. 밤에 본 이상한 형체 때문에 귀중한 수면 시간을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 아침, 급기야 출근길 전철을 기다리다 철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또 다른 허연 얼굴을 발견한다. 새카맣고 큰 두 눈을 가진 그 섬뜩한 무언가가 이제 막 출발하려는 전철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기관사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챈 로라는 있는 힘껏 멈추라고 소리친다. 정신 나갔냐는 기관사의 욕설 섞인 분노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고서야 로라는 그 허연 얼굴을 한 무언가가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교대가 늦어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이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로라는 결국 교대 시각을 한참 넘겨 겨우 병원에 도착한다.

원칙대로라면 매일 새로 깨끗하게 빤 유니폼을 입어야 하지만 반 시체 상태로 퇴근하다 세탁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전날 반나절을 입었던 옷을 다음 날 그대로 입고 일을 곧바로 시작하는 날도 허다하다. 전날 저녁 자신의 모습처럼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된 채 번들대고 입술은 껍질이 다 벗겨진 동료에게 환자 상태를 전달 받고, 로라는 하룻동안 돌봐야 할 연약한 작은 아기들을 하나하나 둘러본다. 대니도 그 위태로운 생명 중 하나였다. 조명을 환하게 켤 수 없어 어둑한 중환자 병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자그마한 대니는 '말기환자'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말기'라는 카테고리가 붙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로라는 점점 무너져가는 대니의 엄마 트레이시와 함께 죽음을 준비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병세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던 환자들의 엄마들, 아빠들도 녹초가 되어 잠깐 조는 새벽 시각에도 로라는 기계들 사이에 누워 있는 아기들을 주시한다. 고요한 병실에 기계 소리와 드레싱, 약, 아픈 사람의 몸에서만 나는 독특한 냄새가 뒤엉킨 묘한 공기를 들이킬 때 로라의 머릿속에 전날 밤 나타났던 알 수 없는 형체가 다시 겹치기 시작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소아 병동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끝없이 싸움이 이어진다. 가망이 없는 아이들 곁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싸움, 작은 실수가 여린 아이들의 희박한 숨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손짓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스스로와 벌이는 사투, 그리고 기계에 묶인 채 살기 위해 조용히 애쓰는 아기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된다. 새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간호사 훈련 중인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줘야 하는 것도 로라를 비롯한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이다. 소설은 로라의 하루하루, 매 시간을 가만히 함께 따라가며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감과 판타지 같은 상상력으로 로라가 겪는 기묘한 일들을 들려준다. 한 간호사의 삶을 가장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이라는 작별을 무수히 견디고 극복해야만 하는 무게가 만들어내는 가슴 아픈 변화를 차분하게 그린, 독특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엠마 글래스(Emma Glass)는 아동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18년에 발표한 데뷔 소설 『Peach』는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에 판매되고 국제 딜런 토머스 상 후보로 선정됐다.

*Celebrities are coming out in force for *Rest and Be Thankful*, following **Florence Welch's** endorsement, today **Poppy Delevingne** has recommended it to her **1.5million Instagram** followers*

She said it was 'haunting yet beautifully written' and a 'masterpiece'

Today it was also featuring on ***The Economist*** online (9million monthly browsers) as part of a feature about nurses in literature:
https://www.economist.com/prospero/2020/05/12/compared-with-doctors-literary-nurses-have-been-a-rare-breed

Plus over the weekend we saw Emma's piece on the best books on burnout run in the ***Guardian*** in print and it was in the top 10 most read book articles on their website: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0/may/11/from-nhs-memoirs-to-the-bell-jar-the-best-books-about-burnout

Metro have also reviewed since my last update, saying '**the ward scenes, with their crystalline descriptions of the vertiginous business of care, exquisitely beat out the ceaseless rhythms of life on a hospital front line.'**

This comes a few weeks after Emma did a brilliant and fascinating profile interview in the ***Evening Standard*****,** fantastic to see such long term engagement:
https://www.standard.co.uk/lifestyle/books/rest-and-be-thankful-by-emma-glass-review-a441616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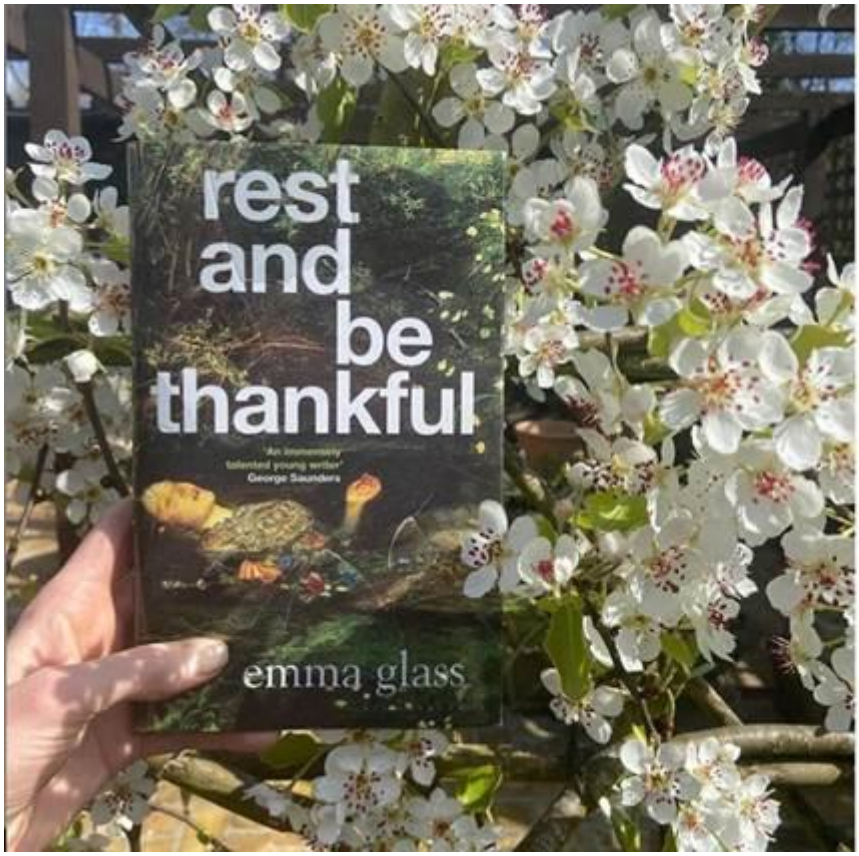
On the 19th March, Bloomsbury published Emma Glass' extraordinary second novel, ***Rest and Be Thankful***, and response from the press has been brilliant. With true admiration for all medical staff around the world at the minute, there has been much interest in Emma's experience working as a n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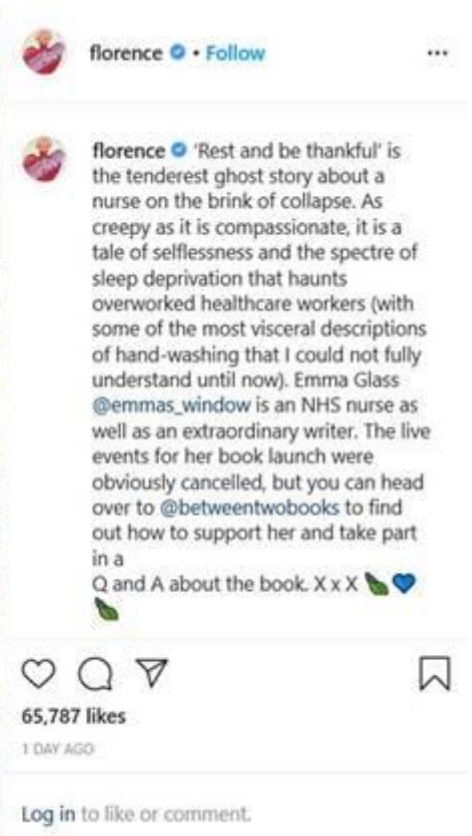
Emma was interviewed about *Rest and Be Thankful*, her writing career, and her work as a nurse on **BBC Radio 4 Woman's Hour** today (3.7 million weekly listeners). Listen to the full interview here (11minutes in)

GRAZIA

Rest and Be Thankful has also been picked by book club **Between Two Books** and we're excited to say that **Florence Welch has posted a photo and review to her 1.4million followers on her Instagram**.

The post has already had over 65k likes, which is incredible. You can read her caption below where she calls Emma Glass an 'extraordinary writer'. A true testament to the novel and our beautiful cover for her to include it as a post on her personal account.





***Grazia* magazine** ran a double-page piece by Emma on 'things you only know if you've suffered from burnout', which generated some fantastic online buzz and was read by their 106k readers in print. Please see the full piece attached.

The Guardian

Emma is writing a piece on the best books about burning out for the ***Guardian*'s** **'Further Reading'** slot which will go out in print and online.

BIG ISSUE NORTH

READING ROOM

Author Q&A: Emma Glass

REST AND BE THANKFUL

The Big Issue **North** have picked Emma for their author Q&A slot to run around publication – a full page interview about her writing. [Please see the full interview here.]

Brilliant press reviews have started to flood in, for example, the I Paper review [attached.]

Blends gnawing tension and surging tenderness … At its height, Glass's battlefield prose calls to mind not a hospital soap but the literature of the trenches. This, though, is a trauma-generating war on death and despair fought for us in every city, every day - i paper

Unsettling, idiosyncratic and discomforting, as well as being moving and utterly absorbing … A bold, memorable novel – gripping, strange and utterly singular – Spect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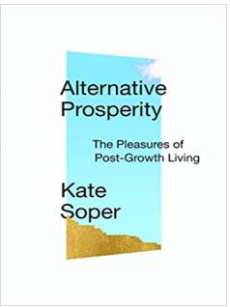
A daring novel - Sunday Times

A visceral work - New Statesman

An impressive achievement … A truly original voice for the future - Big Issue

Readers have also fully engaged, sharing their brilliant reviews on social media.

NON-FICTION



제목 : ALTERNATIVE PROSPERITY

가제 : 적게, 느리게: 대안적 즐거움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저자 : Kate Soper

출판사: Verso

발행일: 2020년 9월 2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인문사회, 환경

*** 더 나은 삶을 향한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절박하고도 열정적인 호소가 담긴 책**

환경 재앙은 자연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위협하고 있다. 다른 자연 재해들과는 달리 환경 재앙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간의 복지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철학자인 저자 케이트 소퍼는 오늘날 극심한 기후 변화 문제가 대중소비주의,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먼저 지난 수 세기 동안 끝없이 성장과 발전을 숭배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값싼 일회용 용품을 사용한 결과, 지금과 같은 환경 재앙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임박한 재앙에 앞서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

저자는 우선 기술적인 수단이 아닌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평등하며 세계적일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적인 표준을 확립하여 그에 맞게 생활 방식, 노동 방식, 소비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퍼 교수는 녹색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삼림 재조림과 같은 다른 기타 해결 방안들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 방안들 역시 성장 주도 소비 문화를 포기하는 문화적 혁명과 함께 진행 되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문화적 혁명이란 우리의 쾌락의 지향점을 바꾸는 '대안적 쾌락주의'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환경을 위해 소비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희생과 즐거움의 상실'이라는 기존 관점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기존의 우리의 소비 행위는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면에서 인간의 복지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사고 가지기 위해 스스로를 부인하고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핑계로 일과 돈을 버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즉,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소비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쾌락 대신 적게 소비하고, 적게 일하고 느리게 여행하며 자유 시간을 늘리고 전통적인 방식 대신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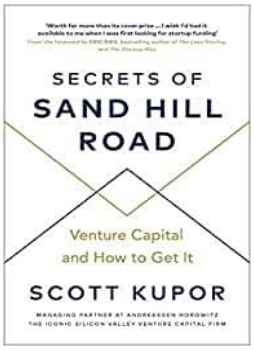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저자는 이 주장은 결코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며 오히려 그 동안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해 '좋은 삶'의 기준을 정해왔던 것을 타파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기존의 우리 소비 문화를 뒤돌아보고 '좋은 삶'을 향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사회, 자연, 소비
2장. 왜 '대체 쾌락주의'인가? 왜 지금인가?
3장. 소비, 소비주의 및 즐거움
4장. 일과 그 너머
5장. 문화 정치와 대안 적 쾌락 주의 상상 : 운송, 레저, 물건
6장. 번영에 대해 생각하며
7장. 녹색 르네상스를 향해: 문화 혁명 정치 구현

<저자 소개>

케이트 소퍼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며 주로 환경 철학과 요구와 소비 이론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Secrets of Sand Hill Road

가제 : 샌드 힐 로드의 비밀: 스타트업 자본에 대한 모든 것!

저자 : Scott Kupor

출판사: Virgin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영, 경제

*** "책의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 처음 스타트업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에 이 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해보았다." - 에릭 라이스**

*** VC(Venture Capital: 벤처 자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소개하는 책**

모든 스타트업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큼이나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 자본이 필요하다. 때문에 야심찬 스타트업 주자들은 언제나 실리콘 밸리의 꿈의 거리라고 불리는 샌드 힐 로드 (Sand Hill Road)를 찾아 온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스캇 쿠퍼가 관리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회사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가 있다. 이 회사는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에어비앤비가 초기 설립 단계에 있었을 당시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미리 투자한 회사이다. 또한 저자는 원래 변호사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기업가로 변신해 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키워낸 능력자 중 능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에서 그는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다음 단계로 확장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VC(Venture Capital: 벤처 자금, 벤처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 투자자들의 생각에 대해 파악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벤처 캐피탈 회사와 투자자들이란 어떤 존재일까? 먼저 벤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인센티브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벤처 자본가는 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대규모 투자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대학 기부 기금이거나, 연금 기금 및 헤지 펀드이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 수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벤처 자본에 투자한다. 또한 이 기금에는 특정 기준들이 있기 마련이다. 즉 자본 반환에 관한 특정 시점, 각 벤처 자본 펀드의 기대치 등에 대한 지침을 미리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할 회사와 금액을 정하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다음은 투자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최상의 거래를 따내기 위해 필요한 필수 사항들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스타트업 회사에만 투자하는 이유

-벤처 캐피탈을 조달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스토리텔링인 이유

-이전 경우보다 더 낮은 평가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 해야 할 때 '다운 라운드(down round: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 투자 때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 받는 회사)'를 다루는 방식
-'브리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 기존 투자자에게 마지막 라운드를 다시 여는)'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이유
-VC가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너무 얽혀있을 때 해야할 일
-판매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잠재적 인수자와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

저자의 실전 경험과 업계 내부자로서의 조언 및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업의 길로 이끌어줄 유용한 가이드가 될 책이다.

<목차>

에릭 라이스의 서문
1장. 그때와 지금
2장. 벤처 캐피탈이란 과연 무엇인가?
3장. 초기 단계에서 VC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4장. LPs는 무엇이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5장. "한정판": LP가 VC와 협력하는 방법
6장. 스타트업 형성
7장. VC를 통해 자본 확보하기
8장. 피치의 기술
9장. 용어 모음집: 1 부(경제학)
10장. 용어 모음집: 2 부 (관리)

<저자 소개>

스캇 쿠퍼 (Scott Kupor)은 Andreessen Horowitz의 관리 파트너이다. 그는 직원 수가 150명이 넘는 70 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가진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직접 감독했다. 또한 그는 Stanford Venture Capital Director's College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책임자이며 스탠포드 로스쿨, UC 버클리 로스쿨,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그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 투자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이전에는 내셔널 벤처 캐피탈 연합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제목 : FEMINISM, INTERRUPTED

가제 : 무엇이 페미니즘을 방해하는가?

저자 : Lola Olufemi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20년 3월 20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사회, 페미니즘

*** "페미니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없이 정확한 설명이 담겨 있는 필수 도서" - 『The Heart of the Race: Black Women's Lives in Britain』의 공동 저자, 스텔라 대드지**

*** "이 시대 가장 역동적인 젊은 페미니스트들 중 한 명인 저자의 열정이 담겨 있는 책,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Me, Not You: The Trouble with Mainstream Feminism』의 저자 앨리슨 핍스**

이제 어딜 가나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티셔츠나 가방에도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박혀 있고 한때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기 힘들었던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시대의 주류 속으로 들어와 인기 슬로건이 되었다. 하지만 런던 거주 흑인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활동가인 저자 롤라 올루페미는 페미니즘은 필수 아이템 같은 것이 아니며 페미니즘은 정의를 위해 싸우기 위한 무기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로 블랙 페미니즘, 즉 백인 위주의 페미니즘 담론에서 벗어나 비백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바로 우리의 상상의 실패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저자는 국가 자체를 가부장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영국의 감옥의 여성 수감자의 57 %가 가정 폭력 유경험자이며 이는 남성에게 더 유리한 소득을 허락한 사회 구조가 여성을 학대 당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몰아 넣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백인 여성들과 달리 흑인 여성들은 국가 차원의 인종 차별까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배로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더 쉽게 사고로 죽게 되는지, 또 정신적, 육체적 불건강 상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어떤 식으로 자살 시도나 질병에 이르러 목숨을 잃게 되는지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저자는 유색인 여성들이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덧입게 되면서 그 이전보다는 쉽게 안전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하긴 했지만 정작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저자는 아일랜드에서 열린 임신 중단 국민 투표에서 두 명의 유색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연관 운동들에서는 단 한 명도 참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그녀는 억압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채, 무슬림 여성들을 타자화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중산층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한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비백인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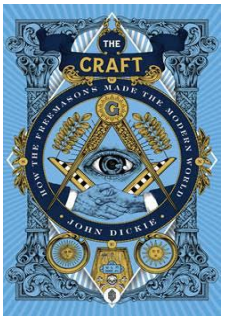
들을 중심으로한 페미니즘에 대해 소개하며 더 넓고 깊은 방향으로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목차>

1장.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2장. 성차별적인 국가
3장. 생식 정의를 위한 싸움
4장. 트랜스혐오: 승자는 누구?
5장. 구원자 콤플렉스: 무슬림 여성들과 성별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이슬람혐오주의
6장. 예술을 위한 예술
7장. 복잡한 마음이 드는 합의: 성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8장. 성범죄에 대한 답은 더 이상 감옥 행으로만은 부족하다.
9장. 페미니즘과 음식
10장. '연대'라는 말은 행동하는 단어이다

<저자 소개>

롤라 올루페미 (Lola Olufemi)는 런던 출신의 흑인 여성 작가이자 페미니스트이다. 저자는 학교, 대학 및 지역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정치 조직의 역사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작으로는 공동 집필한 책인 『A FLY Girl's Guide to University: Being a Woman of Colour at Cambridge and Other Institutions of Power and Elitism』이 있다.



제목 : THE CRAFT

가제 : 궁금한 이야기, 프리메이슨

저자 : John Dickie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20년 8월 10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역사

*** 6개국 판권 계약 -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 음모론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프리메이슨'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 집단의 역사와 속성에 대해서 소개**

누구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국의 웰링턴 공작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알 법만 사람들 중에는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월트 디즈니, 볼프강 모짜르트, 샤킬 오닐, 벤자민 프랭클린, 버즈 알드린, 러디야드 키플링 등이 있으며, 내부자들은 흔히 서로를 '장인(the Craft)'라고 부른다.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존재는 신비로움과 함께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었다.

1717년 런던에서 인맥을 맺고 관리하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이십여 년 만에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조지 워싱턴의 지도 하에 '장인'은 미국이라는 신흥 부국의 신조가 되었다. 프리메이슨 네트워크는 영국을 하나로 결집시켰고, 나폴레옹 치하에서 장인은 반란과 혁명을 덮는 권위주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몰몬 교회와 시칠리아의 마피아 집단 또한 모두 프리메이슨 집단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초기 프리메이슨 단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만큼이나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우선 프리메이슨이 영국에서 탄생했다는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었다. 영국은 막강한 국회와 선거, 언론사들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의 존재는 마치 외계의 위협 같은 존재였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전복하기 위한 스파이 같은 존재들로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프리메이슨 단원들은 그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아니었고 그 어디에도 종속된 존재들이 아닌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또한 단원들 중에는 상인, 변호사, 배우, 유태인 심지어는 의심스러운 아프리카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는 강력한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집단도 아니었을 뿐더러 단원들 중 귀족들이 많긴 했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별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사실상, 누가 이 집단을 통치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이 곳의 모든 지휘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정치적 모토였다.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언제나 비밀스러운 수수께끼 그 자체였으며 악마 숭배자들의 소굴로 밖에 비춰질 수 없었다. 또한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같은 독재자들에게 그들의 존재는 평화주의, 사회주의, 유태인의 힘을 세계에 퍼트리는 탄압의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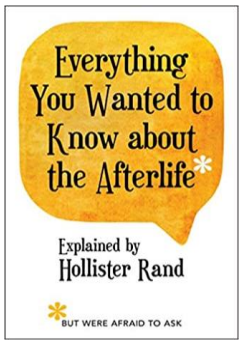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존 디키 교수는 기존의 음모론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리메이슨 집단에 대해 소개한다. 영국에만 사십만 명의 단원이 있으며 미국에는 백만 명이 넘는 단원이 있고 전 세계에 총 육백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 집단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제1장. 리스본: 존 쿠스토스의 비밀
제2장. 아무 곳도 아닌 곳 : 히람 아비프의 수상한 죽음
제3장. 에딘버러 : 기억의 예술
제4장. 런던: 거위와 철의 표식
제5장. 파리 : 그리스도와의 숭배와의 전쟁; 왕과 모든 왕좌와의 전쟁
제6장. 나폴리 : 열병
제7장. 워싱턴 : 미덕을위한 롯지
제8장. 찰스턴: 아프리카 인들이 바로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질서의 창조자였다.
제9장. 로마 - 파리 : 19 세기의 악마
(이하 생략, 총 1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디키 (John Dickie)는 런던대학의 이탈리아어학과 교수이다. 전작으로는 20여 개국에 출판되어 CWA Dagger Award 수상작이 된 『Cosa Nostra: A History of the Sicilian Mafia』와 이탈리아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송으로 제작한 『Delizia!: The Epic History of the Italians and their Food』가 있으며 최근작으로는 『Mafia Brotherhoods』, 『Mafia Republic: Italy's Criminal Curse』가 있다. 2005년 그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Commendatore dell'Ordine della Stella della Solidarieta Italiana'로 임명 받은 바 있다.



제목 :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THE AFTERLIFE

가제 : 죽음, 그 다음은? - 사후세계의 신비를 설명하다

저자 : Hollister Rand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

*** "그녀는 이 책에서 전문 영매로 일한 방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세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의심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상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 - 『Animal Spirit Guides and Sacred Ceremony』의 저자, Dr. 스티븐 파머**

*** " 숙련된 영매가 경험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이 당신을 위한 책일 것이다. " - 애리조나 대학교의 의식 및 건강 증진 실험 센터의 수석 교수 겸 책임자, 게리 E. 슈바츠 박사**

대부분 어른이 되면서 호기심을 점점 잃어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궁금한 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 혹은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다. 정말 죽음 다음의 삶, 내세가 존재하고 있을까?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살아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난 25년간 영매로 활동해온 저자 홀리스터 란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 탐구해 왔으며 많은 영혼들과 소통해 왔다. 그녀는 항상 "우리가 왜 이 세계에 존재하는가?", "내세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전세계의 사람들과 만나 일하면서 죽음 이후의 영혼들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의사 소통에 대해 친숙해지면서 더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Q&A 포럼을 열거나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모임들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행사 뒤에도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저자는 이 질문들이 그 어떤 질문들보다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가장 좋은 질문들은 청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질문을 꺼내기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질문들을 수집했고 이 답변들을 작성한, 바로 이 책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저자는 자신 특유의 따뜻한 온기와 정성으로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후세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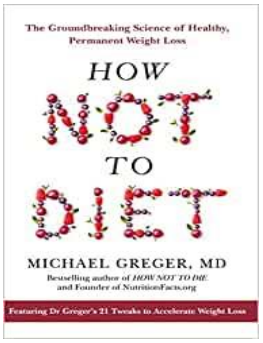
한 명확하고도 고차원적인 이해와 더불어 영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 해 두고 이 지구상에서 하게 될 짧은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의 삶을 탐색하는 법을 알려준다. 영적 여정에 대한 진실과 감동적이고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목차>

1 부: 기본적인 질문들
1장. 내세는 정말 존재하나요?
2장. 영혼은 내세가 어떤지 말해주나요?
3장. 귀신과 영의 차이가 있나요?
4장. 대체 영매는 어떤 존재인가요?
5장. 영매 행위란 무엇인가요?
2 부: 영매가 된다는 것
6장. 초능력과 영매 능력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가요?
7장. 모든 영혼이 같은 방식으로 영매와 소통하나요?
8장. 영매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영혼과 대화 할 수 있나요?

<저자 소개>

홀리스터 란드 (Hollister Rand)는 25 년 이상 영혼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정신의 자세한 메시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Sirius XM의 John Edward Psychic Radio, America Now 등과 같은 다양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으며 저작으로는『I'm Not Dead, I'm Different 』가 있다.



제목 : HOW NOT TO DIET

가제 : 다이어트를 그만 해야 살이 빠집니다! - 유행아 아닌 과학으로 하는 체중 감량

저자 : Michael Greger

출판사: Bluebird

발행일: 2019년 12월 12일

분량 : 608 페이지

장르 : 건강

*** 7개국에 판권 계약 - 영국, 독일, 스웨덴, 헝가리,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 "과학에 근거한 자료들과 식단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지침들을 담은 책" -「Noted」**

*** "전형적인 이야기나 판타지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텔레그라프」**

"국민 건강의 다른 어떤 영역도 영양과 관련된 지식만큼 잘못된 정보가 퍼진 분야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이용해 국민들의 건강과 어마어마한 돈을 빼앗고 있다." 이 말은 언젠가 미 백악관에서 열린 건강영양식품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이었다.

실제로 거의 매달 체중 감량을 위한 최신 다이어트 비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늘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저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 다이어트법이 결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비만 인구와 이와 관련된 질병 및 장애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식단과 체중 조절을 위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그레거 박사는 실제 임상 데이터와 최첨단 연구를 바탕으로 확립된 체중 감량과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방법과 손쉬운 지침을 소개한다. 저명한 영양 전문가이자 의사이며 많은 이들에게 평등하게 영양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Nutritionfacts.org'의 창립자인 그레거 박사는 유전적 요인과 기타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비만의 다양한 원인과 어떻게 비만이 당뇨병에서 암, 정신 건강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따라서 그레거 박사는 체중감량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세분화하여 우리에게 소개한다. 또한 그는 식이 섬유와 수분이 풍부하고 지방, 소금, 설탕이 적고 항염증제가 들어 있는 식품들을 이용한 식단까지 이 책에 실었다.

박사는 정 시간에 맞춰 식물성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 몸의 내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중 감량을 촉진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궁극적인 목표인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의 가장 효과 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접근 방식에 관한 명확한 계획안을 제공한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다이어트에 종지부를 찍고 식물 기반 생활 방식을 통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머리말
서문
1장. 문제
원인
결과
솔루션
비만 수술
다이어트 약
체중 감량보조제
정책 접근
2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성분 다이어트
소개
항염증
깨끗한
섬유질 함량이 높은 음식
(이하 생략, 총 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그레거 (Michael Greger)는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영양, 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연사이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과학'을 기본 개념으로 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인 『The How Not To Die Cookbook』의 저자이다. 또한 그는 인기 웹사이트 인 'Nutrition Facts (비영리 과학 기반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며 최신 영양 연구에 대한 무료 일일 비디오 및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Public Health and Animal Agriculture at the Humane Society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